

## 15. 조선후기의 회화(4)-김홍도 이후

1. 김홍도의 회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 이 밖의 조선후기 화가와 작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1.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진경산수화, 풍속화, 남종화, 도석인물, 고사인물, 영모화조, 사군자, 초상화, 기록화, 불화, 판화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명작을 남긴 대가

-정조의 신임을 받았던 화가: “김홍도는 그림에 숨겨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쯤 전에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케 하였다.” 『홍재전서』 권7

- 《관동팔경도》 간송미술관

- 《을묘년화첩》, 1795년 “乙卯仲秋寫 贈金景林 檀園” 김경림은 역관이었던 김한태. 당시 한양 첫째 가는 거부였다 함.

- 《병진년화첩》, 1796년.

- 《화성능행도병》 1795-1796년경. 정조가 1795년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동년 회갑을 맞이하여 사도세자의 현릉원이 있는 화성으로 혜경궁을 모시고 행차한 뒤 성대한 잔치를 열면서 거행했던 행사들을 담은 기록화. 조선시대 행사 기록화 중 가장 풍부한 내용으로 화려하고 장대하게 묘사한 뛰어난 작품.

행사 후 1796년 완성된 계병. 김홍도, 이인문, 김득신, 최득현 등 많은 화원이 참여.

-<군선도병>: 동왕공이 서왕모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었을 때 동참했다는 신선들의 행렬을 그린 것. 30대 전반의 힘이 약동하는 작품.

-<삼세여래체탕>: 1790년(김홍도 46세때)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현릉원으로 옮긴 후 원찰로 조성한 용주사 대웅전의 후불탱. 김홍도, 이명기, 김득신이 함께 탕화를 주관 완성. 서양화법이 두드러짐. 원근법, 음영법.

\*하엽준(荷葉皴): 연잎의 엽맥(葉脈) 줄기와 같이 생긴 준. 산봉우리의 표면 묘사에 주로 사용된다. 물이 흘러내려 고랑이 생긴 산비탈 같은 효과를 내며 조맹부가 창안한 후 남종화가들이 종종 사용하였다.

### 2. 김홍도 이후의 화가들

#### 이인문(李寅文, 1745-1821)

화원, 자는 문욱(文郁), 호는 고송유수관도인(古松流水館道人).

<강산무진도>

네 계절에 걸쳐 천봉만학 대자연의 변화무쌍한 모습과 이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인간들의 생활상이 묘사됨. 부벽준, 피마준, 미점 등이 적절하고 변화있게 구사됨.

#### 신위(申緯, 1769-1845)

-자는 한수(漢叟), 호는 자하(紫霞), 경수당(警修堂), 관은 이조판서.

-1813년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서 청조의 문물을 직접 접하고 화명을 날렸다.

-조선후기의 강세황, 청의 옹방강(翁方綱), 주학년(朱學年), 나빙(羅聘) 등의 영향을 받았다.

-여백을 중시하는 여유롭고 안정된 구도, 원만하고 유연한 필치로 문인화 특유의 아취와 품격을 드러냄. 묵회적인 흥취와 작가의 심의를 투영시킨 사의성을 중시한 작품도 보임.

<석죽도>:

\*신위 묵죽의 특징:

- 세장하고 곡선적인 죽간,
- 담묵의 죽간에 농묵의 죽절과 죽엽,
- 바위의 비중이 커지고
- 제시(題詩)를 구성의 요소로 적극 이용.

**윤제홍(尹濟弘, 1764-?)**

자는 景道, 호는 鶴山, 餐霞. 관은 승지.

<산수도>

스케치 같이 간략한 구성과 필법, 담청과 담갈색으로 이루어진 특이한 색조. 수채화의 분위기를. 김수철, 김창수에게 전해져 이색적인 화풍을 이룸.

**이재관(李在寬, 1783-1837)**

도화서 화원. 자는 元綱, 호는 小塘. 관은 감목관.

<송하처사도>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2004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